

## 숨겨진 진실을 찾아서

－ 쉬즈모(徐志摩)의 ‘바바오상(八寶箱)’ 미스터리에 대한 小考－

이 경 하\*

### <目次>

- |                      |                  |
|----------------------|------------------|
| I. 들어가는 말            | 1. ‘바바오상’의 존재    |
| II. 쉬즈모의 ‘통신원’ - 링슈화 | 2. 린웨이인과 링슈화의 갈등 |
| III. ‘바바오상’ 미스터리     | IV. 나오는 말        |

### I. 들어가는 말

쉬즈모(徐志摩, 1897~1931)처럼 그를 둘러싼 이야기가 이처럼 흥미로운 작가가 또 있을까? 쉬즈모에 대한 연구를 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새로운 이야기가 이어져 나오는 그의 인생 스토리에 매료되지 않을 수 없다. 비단 린웨이인(林徽因, 1904~1955)에 대한 가슴 저린 러브스토리나 루샤오만(陸小曼, 1903~1965)에 대한 뜨거웠던 연정 때문만은 아니다. 쉬즈모의 삶과 연결된 인연들을 따라 가다 보면 어느새 20세기 초 중국 문예계를 엿볼 수 있는 행운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시인으로서 쉬즈모는 일찌감치 작품성을 인정받고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의 인생을 다룬 드라마가 1999년 타이완과 2000년 대륙에서 방영되면서,<sup>1)</sup> 일반 대중들 또한

\* 덕성여자대학교 교양학부 초빙교수

1) 이 드라마는 큰 흥행을 거두었지만, 린웨이인의 자녀들은 이 드라마가 여러 가지 면에서 진실을 왜곡했으며, 대중들로 하여금 역사적 사실과 드라마의 허구적 내용을 혼동케 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비판하였다. 특히 드라마 속에서 자신의 어머니 린웨이인과 쉬즈모를 연인처럼 묘사한 부분에 대해 큰 반감을

그에 대한 관심을 그의 문학작품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그와 관련된 주변 인물들에게로 넓혀나가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가장 집중적인 조명을 받은 이는 바로 ‘린웨이인’이었다. 두 사람의 러브 스토리를 다룬 쉬즈모의 시는 종종 노래로도 만들어져 젊은 중국인들에게도 친근하다고 볼 수 있는데, 1998년에 타이완 가수 완팡(萬芳), 2007년에 타이완의 유명 여성 아이돌 그룹 ‘S.H.E’가 불렀던 〈캠브리지와 다시 이별하며 再別康橋〉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sup>2)</sup> 또 드라마를 통해 대중들의 입에 많이 오르내린 이는 량치차오(梁啓超, 1873~1929)의 악담 주례사를 들으며 그와 결혼식을 올린 루샤오만(陸小曼)이었다.<sup>3)</sup>

보였고, 린웨이인과 쉬즈모는 물론 다른 주요 등장인물에 대한 표현이 너무 단편적이고 실제와는 다른 왜곡된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강한 어조로 비난하였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岳南의(〈梁從誠: 徐、林之間沒有愛情〉, 《如果我的心是一朵蓮花: 林徽因時代的追憶》, 中華書局, 2012, 137~141쪽)을 참고하기 바란다.

- 2) 〈캠브리지와 다시 이별하며 再別康橋〉는 1928년 11월 6일 쉬즈모가 영국을 방문한 후 귀국 길에 쓴 작품으로 1928년 12월 《신월 新月》1권 10호에 발표되었다. 그는 이보다 앞서 1922년 8월에 영국을 떠나면서 린웨이인과의 추억이 깃든 케임브리지를 추억하는 시 〈캠브리지여, 다시 만나기를 康橋再會吧〉을 지은 바 있다. 2008년 케임브리지대학 킹스 칼리지 측은 이와 같은 쉬즈모의 모교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작품 발표 80주년 기념행사로 그의 시 전문(全文)을 새긴 대리석 비석을 학교 후원에 세웠다고 한다. 沈蒙和, 〈劍橋大學徐志摩詩碑來歷: 受一棵柳樹的啟發〉, 《中國新聞網》, 2012.10.23, <http://life.21cn.com/b/bk/living/2012/10/23/13348991.shtml>(2012.11.23 접속)
- 3) 1926년 8월 14일(음력 7월 7일) 약혼식을 올린 쉬즈모와 루샤오만은 10월 3일 베이하이공원(北海公園)에서 결혼식을 올렸는데, 두 집안에서 모두 결혼을 허락하는 조건으로 량치차오(梁啓超, 1873~1929)가 주례를 맡아야 한다고 요구했기 때문에, 쉬즈모의 스승이었던 량치차오는 어쩔 수 없이 쉬즈모의 결혼식에 주례선생님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두 사람의 결혼에 대해 불만이 많았다. 첫째는 루샤오만의 전 남편 왕경(王賡, 1895~1942)이 그의 제자였기 때문이고, 둘째는 쉬즈모가 이혼하려 할 때 자신이 이혼을 만류하는 장문의 편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까닭에 량치차오는 결혼식 역사상 신랑신부를 꾸짖는 전대미문의 주례사를 행하였다. 柴草, 《眉軒香影陸小曼》, 人民文學出版社, 2012, 84~87쪽.

쉬즈모가 30대 중반의 젊은 나이에 예기치 않은 사고로 운명을 달리한 이후 사람들은 불행한 결혼 생활의 모든 책임을 루샤오만에게 돌렸고, 팜프파탈의 악녀적 이미지를 그녀에게 덧씌웠다.<sup>4)</sup>

그런데 린웨이인과 루샤오만 이외에도 쉬즈모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여성이 있었는데, 그녀는 바로 쉬즈모와 이성간의 경계를 뛰어 넘어 우정을 나눈 링슈화(凌叔華, 1900~1990)였다. 드라마에서는 쉬즈모와 링슈화가 나눈 우정은 거의 다뤄지지 않은 채, 린웨이인이나 루샤오만과의 러브 스토리에 초점이 맞춰졌는데, 사실 링슈화는 쉬즈모가 살아생전 가장 믿을만한 사람이라고 공언할 만큼 그의 신임을 한몸에 받았던 인물이었다.

쉬즈모는 린웨이인과 쓰디 쓴 이별을 하고 루샤오만과 불같은 사랑을 나누기 전인 1924년 봄 타고르(Rabindranath Tagore, 1861~1941)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링슈화를 알게 되었다. 타고르의 방중 기념 활동으로 열린 연징대학(燕京大學) 좌담회 때 링슈화가 학생 대표로 참석했기 때문이다. 이후 그녀가 자신의 집으로 타고르 일행을 초대함으로써 신월사(新月社) 회원들과의 교류가 시작되었다.<sup>5)</sup> 처음에는 같은 신월사 멤버였던 린웨이인과 링슈화 사이에 별다른 갈등이 없었다. 그러나 쉬즈모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인해 ‘바바오상’ 미스터리가 촉발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게 되었다.

그럼 우선 ‘바바오상’ 미스터리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자. 1925년 루

4) 이와 같은 세간의 평가에 대해 루샤오만과 오랜 기간 교류했던 자오칭거(趙清閣 1914~1999)는 불만을 표시했으며, 쉬즈모 사후 루샤오만의 삶에 대해 새롭게 조명하는 글을 발표하여 후세 사람들이 루샤오만에 대해 올바른 평가를 내릴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趙清閣, 〈絨線背心的溫馨—憶好友陸小曼〉, 《文彙報》, 1993년 11월 2일. / 趙清閣, 〈陸小曼幽怨難泯〉, 《新文學史料》, 1999년 第2期.

5) 신월사는 구미유학을 다녀온 베이징 엘리트들의 비정기 회식 모임이 그 전신으로 쉬즈모가 1924년 봄 타고르의 중국 방문을 기획하며 ‘신월사’를 만들자고 제안했지만, 사무실을 당장 구할 수 없어 타고르의 중국 방문 이후에서야 간판을 달고 활동하게 되었다. 王一心·李伶伶, 《徐志摩·新月社》, 陝西人民出版社, 2009, 57~58쪽 참고.

샤오만과의 연애로 인해 베이징이 떠들썩해지자 쉬즈모는 굉장히 힘든 나날을 보내게 되는데, 그때 마침 유럽에 머물고 있던 타고르가 자신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편지를 받고 쉬즈모는 유럽에 가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떠나기 전 유학 시절부터 간직해온 ‘캠브리지 일기’ 등과 같은 중요한 개인 자료들을 링슈화에게 맡겼다. 이후에도 그는 몇 차례에 걸쳐 자신의 개인 자료들을 맡겼고, 이 자료집 상자를 ‘바바오상’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쉬즈모가 죽고 난 후 그의 지인들 간에 전집 출간이 논의되면서 ‘바바오상’의 자료를 둘러싸고 린웨이인과 링슈화 간에 갈등이 발생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두 사람의 의견이 워낙 상반되었기 때문에 세간에서는 이를 “‘바바오상’ 미스터리”라고 칭하였다.<sup>6)</sup>

과연 이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 드라마의 흥행과 더불어 서점가에 쉬즈모 관련 서적이 대중들의 사랑을 받게 되면서, 쉬즈모의 ‘바바오상’ 미스터리도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특히 쉬즈모, 린웨이인, 루샤오만, 링슈화, 후스(胡適, 1891~1962)의 전기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속속 언급되면서,<sup>7)</sup> 대중들의 호기심은 더욱 증폭되었다. 그러나 관련 인사들이 이미 고인이 되었고, 이에 대한 기록 역시 자신의 입장에 따라 다르게 기술되었으므로, 그 진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이 문제는 여러 연구자들이 언급한 것처럼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1차 자료가 유실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선부른 판단 역시 금물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우리가 쉬즈모와 린웨이인, 링슈화를 이해하는

- 6) 薑雯漪, 《林徽因傳:有你是最好的時光》, 中國華僑出版社, 2012, 81~82쪽 참고.  
 7) 이 사건에 대한 전말은 張淸平의 《林徽因傳》(百花文藝出版社, 2008, 122~131쪽), 劉炎生の 《中國第一才女林徽因》, 湖北人民出版社, 2006, 65~68쪽), 林杉의 《林徽因傳》(九州圖書出版社, 1998, 182~193쪽), 陳學勇의 《蓮燈詩夢林徽因》(人民文學出版社, 2012 第2版, 169~177쪽)과 《高門巨族的蘭花: 凌叔華的一生》(人民文學出版社, 2010, 125~137쪽), 李伶伶·王一心의 《日記的胡適》(陝西人民出版社, 2007, 219~227쪽), 朱映曉의 《凌叔華傳: 一個中國閨秀的野心與激情》(江蘇文藝出版社, 2012, 141~188쪽), 宋生貴的 《凌叔華的古韻夢影》(東方出版社, 2008, 201~205쪽), 391~396쪽), 韓石山の 《徐志摩傳》(人民文學出版社, 2010, 391~396쪽) 등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데 좀 더 입체적인 성격을 띠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문에서는 관련 인물들의 진술과 자료를 통해 사건의 전모를 재구성해 보면서, 사건에 대한 ‘진실’이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영화 <라쇼몽>(1950)처럼 관련 인물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얼마나 다르게 나타나는지 확인해 보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sup>8)</sup> 아울러 문인으로서가 아닌 한 평범한 인간으로서 그들을 직접 대면할 기회를 갖는 이와 같은 작업을 통해, 향후 그들의 작품을 자구(字句)에만 얽매이지 않고, 그 이면 뒤에 숨겨진 함의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는 단초를 제공해 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 II. 쉬즈모의 ‘통신원’ - 링슈화

격동의 시기였던 20세기 초반, 중국의 제1세대 여학생이자 신여성이었던 링슈화<sup>9)</sup>와 베이징 문화계의 중심인물이었던 쉬즈모의 만남은 타고르의

- 
- 8) 구로사와 아키라(1910~1998) 감독이 1950년에 발표한 영화 <라쇼몽>은 아쿠타가와 류노스케(1892~1927)의 유명 단편소설 <라쇼몽>(1915)과 <덤불 속>(1922)을 하나의 이야기로 각색한 작품으로 1951년 베네치아 국제 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을 수상한 바 있다. 무사의 죽음을 둘러싼 관련 인물들의 서로 다른 증언을 통해 감독은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밝혀내는 데 초점을 두기 보다는, 등장인물들의 진술이 왜 다른지에 초점을 맞춰 ‘진실’은 하나이지만, 사람의 이기심에 의해 어떻게 왜곡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이 영화로 인해 ‘라쇼몽 효과’, 즉 “사람은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기억한다”는 말이 유래되었다.
- 9) 링슈화는 전통적인 귀족 가문 출신으로 영어와 회화 과목에 과외 교사를 둘 정도로 집안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학창시절을 보냈다. 그녀는 대학 재학시절 신문학 강의로 많은 인기를 얻었던 저우쥬런(周作人, 1885~1967)에게 작가가 되고 싶다고 직접 편지를 써서 그의 제자가 되었고, 그의 지도하에 1924년 <천바오 晨报>에 여대생의 신분으로 처녀작 <여인의 신세는 너무 처량해 女兒身世太淒涼>을 발표하며 작가의 길로 들어섰다. 문단 데뷔작은 평단의 냉담한 평가를 받았지만, 이듬해 <현대평론 現代評論>에 발표한 <술 마신 후 酒後>라는 작품을 통해 주목할 만한 여성 작가의 반열에 올랐고, 이후 신식 아내를 제재로 한 소설 <화지사 花之寺>·<추석날 저녁 中秋晚>·<봄 春天> 등을 선보이며 동시대 함께 활동했던 평위엔쿰(馮沅君, 1900~1974)·루인(廬隱,

방중 행사를 통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쉬즈모는 린웨이인이 이미 량치차오(梁啓超)의 장남 량쓰청(梁思成)과 혼담이 오가는 사이인 것을 알면서도 그녀가 량쓰청과 동반 유학길에 오르는 1924년 여름까지 그녀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접지 못했다. 이후 마침내 두 사람이 출국하게 되자 그제야 린웨이인에 대한 마음을 포기하게 되는데, 그 아쉽고 허전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링슈화에게 서신 교환을 제안하면서 두 사람간의 편지 왕래가 시작되었다. 쉬즈모는 자신의 제안에 대해 흔쾌히 승낙해준 링슈화에게 다음과 같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자신의 단점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고백하였다.

그대가 이렇게 순수한 자비의 마음을 가졌으리라고는 생각지 않았소. 나의 '통신원'이 되어주겠다고 승낙해주다니. 당신의 조용한 재치와 유머로 생기 잃은 내 거처를 따스하게 해준다면, 내 땅에 닿도록 절을 하리라!

난 다만 내가 거친 사람인 점이 걱정되오. 말할 때 앞뒤 재지 않고 해버리고, 조심하지 않아 쉽게 남의 원망을 사곤 하니까. 나는 또 감성적이라 때론 감정이 폭발하면 마음껏 쏟아 분지 않는다고 장담하기 어렵소. 상대방의 소화 능력이 어떠한지는 염두에 두지도 않고 말이요! 내겐 나쁜 성격이 아주 많아, 일시에 다 말할 수도 없구려. 아울러 그대에게 솔직하게 말해두고자 하오. X, 그대는 이처럼 진실하고 진지하며 의협심이 있지만, 나

1898~1934)·빙신(冰心, 1900~1999)과는 달리 결혼한 신여성들의 내면세계를 재치 있고 풍자적인 방식으로 묘사하여 개성적인 작품을 선보였다는 평가를 받았고, 정치적 견해 차이를 보였던 루쉰(魯迅)에게서도 문학적 성취를 인정받았다.(노승숙, <능숙화 소설 속 신여성들 - 신여성의 결혼과 사회화를 중심으로>, 《中國語文論叢》 제46집, 2010, 500~501쪽 참고) 루쉰은 1925년 5월부터 천시잉(陳西滢, 1896~1970: 본명은 陳源으로 1926년 7월 링슈화와 결혼)과 '베이징여사대(北京女師大)' 사태를 둘러싼 정치적 견해 차이로 인해 자주 논쟁을 벌이며, <'어색한 번역'과 문학의 '계급성' "硬譯"與文學的"階級性"> (《魯迅全集》제4권, 人民文學出版社, 2005, 202~203쪽)을 통해 링슈화를 비롯한 신월사 멤버들을 비판한 바 있다. 그러나, 1935년 《중국신문학대계·소설 2권 中國新文學大係·小說二集》를 엮을 때에는 링슈화의 단편소설 <수놓은 베개 繡枕>를 수록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작품세계에 대해서도 높은 평가를 내렸다.

는 막힌 사람이요. 그대는 아마도 내 뜻을 이해할거요. 난 그저 일평생 이 상징적인 ‘통신원’을 찾고 싶을 뿐임을.<sup>10)</sup>

위의 편지는 ‘즈모의 유고 편지(志摩遺札)’라는 제목으로 1935년 10월 4일 《우한일보 武漢日報》 문화면 〈현대문에 現代文藝〉에 게재되었다. 링슈화는 쉬즈모의 서신 대상이 자신임을 독자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그가 자신을 호칭한 부분은 ‘X’로, 쉬즈모 이름은 ‘XX’로 수정해버렸다. 평소 쉬즈모는 링슈화의 차분하면서도 재치를 겸비한 성격에 크게 매료되었기에 그녀와의 편지 왕래를 통해 실연의 상처와 정신적 충격을 치유하고자 그녀를 자신의 ‘통신원’으로 선택했다.

대화가 통할 수 있는 지기(知己)를 만났다는 점에서 쉬즈모는 링슈화와 의 편지 왕래에 큰 만족감을 드러냈다. 침울했던 그의 마음은 그녀로 인해 활기를 띠게 되었고, 그의 말재주 또한 빠른 발전을 보이게 되었다.<sup>11)</sup> 1924년 7월 피서 겸 타고르의 강연 원고 번역을 위해 루산(廬山)으로 떠났던 쉬즈모는 돌아오자마자 그녀와의 대화가 다른 누구보다 잘 통한다는 점, 다른 사람에게게는 터놓지 못하는 자신의 이야기를 그녀에게만큼은 주저함 없이 토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녀와의 편지 왕래가 자신에게는 너무

10) “不想你竟是這樣純粹的慈善心腸。你肯答應常做我的‘通信員’。用你恬靜的諧趣或幽默來溫潤我居處的枯索，我唯有泥首！我單怕我是個粗人，說話不瞻前顧後的，容易不提防得罪；我又是個感情的人，有時碰著了根觸，難保不盡情的吐瀉，更不計算對方承受者的消化能力如何！我的壞脾氣多得很，一時也說不盡。同時我卻要對你說一句老實話。XX，你既然是這樣誠懇，真摯而有俠性。我是一個悶著的人，你也許懂得我意思。我一輩子只是想找一個理想的‘通信員’。” 이 편지는 1924년 겨울에 쉬즈모가 링슈화에게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 虞坤林編, 《志摩的信》, 學林出版社, 2004, 358쪽 재인용.

11) “說也怪，我的話匣子，對你是開定的了，管您有興致聽沒有，我從沒有說話像對你這樣流利，我不信口才會長進這麼快，這准是X教給我的，多謝你。” 이 편지는 쉬즈모가 1924년 루산(廬山)에서 돌아온 이후 작성된 것으로 ‘즈모의 유고 편지(志摩遺札之一)’이라는 제목으로 1935년 8월 9일 《우한일보》문화면 〈현대문에〉에 게재되었다. 虞坤林編, 《志摩的信》, 學林出版社, 2004, 355쪽 재인용.

나 행복한 글쓰기라고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다.

다른 이에게 보내는 편지도 길게 쓸 수는 있지만, 부자연스럽고 문장이 매끄럽지 않구려. 마음이 편치 않아 표현이 너무 거칠어질까 걱정이 들기도 하고 말ियो. 다른 사람이 걱정할까 조심하다 보니, 말하기와 편지 쓰기가 순수하게 즐겁지만은 않은데, 당신에게만은 이와 같은 두려움이 없소. 당신이 이해해줄 테니까, 당신의 눈이 자구(字句)의 표면적인 뜻을 능히 간파할 수 있을 테니까 말ियो. 나의 허가 진정한 해방을 누리게 되니, 영민함이 명치에서 혈관으로 쏟아져 들어가, 폐부로부터 손가락 마디로, 손가락 마디에서 펜촉으로 전해지는구려. 백지에 떨어진 검은 글자들이 자연스러우면서도 자유를 얻게 되니,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일 거요.<sup>12)</sup>

평소 글쓰기를 업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가까운 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도 신경이 쓰이게 마련이다. 나름대로 필력(筆力)을 자랑하는데 혹여나 상대방이 자신의 글을 보고 예전만 못하다고 생각지는 않을까, 혹은 지나친 자신의 낮두리로 인해 상대방이 걱정해 빠지는 건 아닌지,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면 속마음을 제대로 드러내기 어렵고 표현도 자연스럽지 않게 된다. 그러나 위의 편지에서 언급했듯이 링슈화에게만큼은 이런 두려움이나 걱정이 없기 때문에 편한 글쓰기가 된다고 밝혔다. 친구에게 보내는 찬사의 말 중 이보다 더 감동적인 표현은 없을 것이다. 이를 통해 당시 슈즈모가 링슈화에게 느끼는 신의(信義)가 어느 정도였는지 가늠해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빈번한 서신 교환으로 인해 향간에는 두 사람이 사귀는 것 아니냐는 소문도 돌았다.<sup>13)</sup> 분명 여러 통의 편지에서 보이는 것처럼 당시

12) “我給旁人信也會寫得頂長的，但總不自然，筆下不順，心裏也不自由，不是怕形容高詞太粗，就提防那話引人多心，這一來說話或寫信就不是純粹的快樂。對你不同，我不怕你，因為你懂得，你懂得因為你目力能穿過字面，這一來我的舌頭就享受了真的解放，我有著那一點點小機靈就從心坎裏一直灌進血脈，從肺管輸到指尖，從指尖到筆尖，滴在白紙上就是黑字，頂自然，也頂自由，這真是幸福。”：虞坤林編，《志摩的信》，學林出版社，2004，355~356쪽 재인용.

13) 링슈화는 1925년 2월 쯤 후스에게 보낸 한 통의 편지에서 당시 슈즈모가 자신에게 보낸 편지가 칠발십 통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



쉬즈모는 링슈화를 진정한 지기(知己)로 여겼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이성 간의 경계를 뛰어넘은 우정이었다. 사랑을 위해 영국 유학 생활도 접고 중도에 귀국하였지만, 현실상황은 그의 기대와는 달리 냉혹하기만 했다. 린 웨이인에 대한 그의 마음은 짝사랑으로 끝났고, 첫 부인 장요우이(張幼儀 1900~1988)와의 이혼으로 그동안 아낌없이 지원해준 아버지와의 관계도 갈등 국면에 빠졌기 때문이다.<sup>14)</sup> 이제 그는 링슈화를 통해 이쁜 영혼을 어루만질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말 이상하오. 나의 상상력은 늘 두 가지 녀석을 벗어날 수 없는데, 한 녀석은 꿈이고, 또 한 녀석은 무덤으로 건전하지도, 상스럽지도 않소. 자주 이 어두운 곳에서 나는 어떤 정취를 만들어내지만, 사실 너무 음울하오. X 그대가 지닌 햇살 같은 미소와 사상으로, 온 얼굴에 검은 탄가루를 묻히고 있는 고집스러운 XX를 좀 구제해주구려!<sup>15)</sup>

하는 소문들이 베이징에 퍼졌지만 두 사람이 결코 사귄 적이 없었다고 밝혔는데, 편지 원문 자료는 다음과 같다. 陳學勇 編, 〈凌叔華致胡適〉, 《凌叔華文存》下, 四川文藝出版社, 1998, 901~904쪽(朱映暉, 《凌叔華傳》, 江蘇文藝出版社, 2012年, 52~54쪽 재인용). 이와 같은 내용은 1982년 런던에서 생활하던 링슈화가 천충저우에게 보낸 편지(凌叔華, 〈談徐志摩遺文 — 致陳從周的信〉, 《新文學史料》, 1983年 第1期, 96쪽)에서도 일부 언급되었다.

- 14) 1922년 3월 쉬즈모는 베를린에서 정식으로 이혼한 후 당시의 이혼 심경을 담은 시 〈웃으며 번뇌의 매듭을 푸노라: 요우이에게 바침 笑解煩惱結: 送幼儀〉를 11월 8일자 《신저장 新浙江》문예면에 〈쉬즈모·장요우이 이혼통보 徐志摩·張幼儀離婚通告〉와 함께 게재한 바 있다. (이경하, 《쉬즈모시선》, 지만지, 2010, 20쪽)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이혼을 감행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사실을 지역 신문에 게재하여 세상에 알린 것을 두고 그의 아버지는 집안 망신이라고 여겼고, 이로 인해 아버지와의 갈등은 심화되었다.
- 15) “真怪, 我的想象總脫不了兩樣貨色, 一是夢, 一是墳墓, 似乎不大健康, 更不是吉利, 我這常在黑地裏構造意境, 其實是大晦色了, X你有的的是陽光似的笑容與思想, 你來救度救度滿臉塗著黑炭的頑皮XX吧!”: 이 편지는 1924년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즈모의 유고 편지1’이라는 제목으로 1935년 5월 24일 《우한 일보》 문화면 〈현대문예〉에 게재되었다. 虞坤林編, 《志摩的信》, 學林出版社, 2004, 352쪽 재인용.

이처럼 쉬즈모가 링슈화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며 적극적으로 서신 교환에 나섰다기 때문에, 그녀는 누구보다도 자신이 쉬즈모를 가장 잘 안다고 확신했으며, 1925년 2월 우연히 쉬즈모와 루샤오만의 스캔들을 듣고서도 이를 한낱 호사가들이 지어낸 헛소문으로 치부해 버렸던 것이다.

자연히 소문에도 근거는 있을 테지만, 소문은 항상 본래의 내용보다 더 심해지곤 합니다. …… 그 두 사람에게 사회에서 판단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을 리 없습니다. 그 두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고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즈모는 타고난 시인으로 감정이 풍부해 쉽게 사물을 승배하곤 합니다. 이는 시인의 장점인 동시에 단점인데, 그가 경(왕경: 인용자주)의 부탁으로 천진난만하고 아름다운 젊은 부인을 만나게 되었으니, 그녀에 대한 승배는 자연스러운 일이죠. 게다가 그는 젊은 여인을 치켜세우기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샤오만은 요 몇 달 남편에 의해 건전한 친구들에게로 인도되었어요. 불행히도 여러 사람들이 그녀의 과거가 단정치 못했기에 그녀와 가까이 지내려 하지 않았는데, 즈모는 호의적인 태도로 그녀를 격려 해주었어요. 마음이 통한 두 사람이 지기(知己)가 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 전 그 두 사람이 아이와 같은 면이 있고 동정심 또한 상당히 많은 편이지만, 결코 친구와 남편을 배신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sup>16)</sup>

위의 인용문에서는 쉬즈모에 대한 링슈화의 믿음이 잘 드러나 있다. 쉬즈모는 일찍이 자신에게만큼은 어떠한 고민도 다 털어놓을 수 있다고 말했었기에 그녀는 쉬즈모가 자신에게 일언반구의 말도 없이 유부녀인 루샤오만을 상대로 연애를 하리라고는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다. 또, 본인 역시

16) “自然，謠言也有根，不過變本加厲一定不免……我覺得他們倆絕不能有一般似社會所附度那般的不成樣，他們倆都有原諒也有補救的可能。志摩天生詩人，富於情感上易於崇拜事物—這是詩人，長或短處，他受了賡托付，遇了一個天真爛漫美巧的年輕太太，崇拜是自然的事，何況他是一個喜恭維婦人的人呢？小曼是近幾月來被他的丈夫引到清淨些的友朋中，不幸許多人，因其往事不端不願與她接近，志摩特加青眼并加以鼓舞，兩人爲感遇而成知己，也是當然之事……我信他倆孩子氣是有的，相當同情是有的，但絕無背友 背夫的事。”：朱映曉，《凌叔華傳》，江蘇文藝出版社，2012，52~53쪽.

쉬즈모와의 빈번한 서신 교환으로 인해 향간에 두 사람이 사귀었다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에 이번 사건 역시 그와 같은 해프닝에 불과한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링슈화의 바람과는 달리 쉬즈모와 루샤오만의 관계는 사실로 밝혀졌다. 따라서 쉬즈모의 예민한 감수성을 날것 그대로 받아주었던 ‘통신원’으로서 링슈화의 역할은 점차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 이후 링슈화에게 열려 있던 쉬즈모의 “말상자”가 새로운 연인 루샤오만을 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링슈화는 여전히 가장 믿을 만한 친구이자, 자신의 부도덕한 사랑을 인정해주고 지지해준 몇 안 되는 친구 중 한 명으로 그의 곁에 머물러 주었다.<sup>17)</sup>

### Ⅲ. ‘바바오상’ 미스터리

#### 1. ‘바바오상’의 존재

1931년 11월 19일 비행기 사고로 인한 쉬즈모의 갑작스런 죽음은 중국 문예계에 큰 슬픔과 충격을 안겨주었다. 그런데 그의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베이징 문예계는 생각지도 않은 한바탕 소동을 겪게 된다. 쉬즈모가 링슈화에게 맡긴 것으로 알려진 그의 개인자료에 대한 행방을 둘러싸고 쉬즈모의 절친했던 지인들 간에 얼굴을 붉히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17) 이 당시 링슈화에게도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하고 구애를 나타낸 이가 등장하였는데, 타고르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알게 된 베이징대학(北京大學) 외국문학과 교수 천시잉이었다. 천시잉은 1912년 영국으로 건너가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1922년 런던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엘리트로, 쉬즈모와는 영국 유학 시절부터 친했던 인물이다. 타고르의 베이징 방문기간 동안 쉬즈모를 도와 행사를 주관하면서 링슈화를 알게 되었는데, 성격과 취향은 물론 문학에 대한 가치관 및 열정 등 여러 면에서 공통점을 지닌 두 사람은 이내 연인 관계로 발전하였고, 쉬즈모와 루샤오만의 결혼보다 3개월 앞선 1926년 7월 부부의 연을 맺었다. 宋生貴, 《凌叔華的古韻夢影》, 東方出版社, 2008, 43~44쪽 참고.

훗날 '바바오상'이라고 불린 쉬즈모의 문서 상자에는 서신들과 몇 편의 수필, 시, 그리고 영문일기 두 권, 슈에츠(雪池) 시절 일기 및 루샤오만의 일기 두 권 등이 들어 있었다고 한다.<sup>18)</sup> 쉬즈모의 이 자료들은 한 번에 링 슈화에게 맡겨진 것이 아니라, 두 차례 이상에 걸쳐 맡겨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바바오상'에는 루샤오만의 일기가 두 권 들어 있었다고 하는데, 1925년 3월 쉬즈모가 유럽으로 떠나기 전 루샤오만은 일기를 쓴 적이 없다. 그녀가 일기를 쓴 것은 쉬즈모의 제안에 따라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1925년 초 루샤오만과의 관계가 베이징 문예계에 떠들썩하게 알려지자 후스, 위다푸(郁達夫, 1896~1945), 리우하이수(劉海粟, 1896~1994) 등 일부 지인들은 그들의 사랑을 지지해주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쉬즈모의 행동을 비도덕적이라고 비판하며 그를 꾸짖었다. 이처럼 쉬즈모가 큰 곤경에 빠져 있을 때 마침 타고르의 영국인 비서 레너드 엘머스트(Leonard Elmhurst)가 한 통의 편지를 보내오는데, 타고르를 보러 유럽에 오라는 내용이었다.<sup>19)</sup> 쉬즈모는 국내에서의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유럽행을 결정하면서 루샤오만에게 한 가지 일을 부탁했다. 그것은 평소 그녀의 일상생활을 일기로 기록해두었다가 편지로 부치거나 자신이 귀국한 후에 보

18) 일명 '캠브리지 일기'로 불렸던 이 영문 일기들은 런던 유학시절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글들로 그 안에는 당연히 린웨이인에 대한 쉬즈모의 뜨거운 마음이 표현되어 있었을 것이다. '슈에츠 시절 일기'는 1922년 11월 쉬즈모가 베이징으로 돌아온 후 징산시제(景山西街)의 슈에츠후통(雪池胡同)에서 린웨이인을 쫓아다녔으나, 그녀의 마음을 얻지 못해 실연의 아픔이 기록된 일기로 (대략 1929년 이전) 루샤오만에 의해 불태워졌다고 한다. 린웨이인은 관련된 이야기를 1928년 연말 쯤 쉬즈모로부터 직접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내용은 1932년 1월 1일 오후 후스에게 보낸 린웨이인의 편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整三年前他北來時, 他向我訴說他訂婚、結婚經過, 講到小曼看到他的“雪池時代日記”, 不高興極了, 把它燒了的話, 當時也說過“不過我尚存下我的‘康橋日記’”。陳學勇, 《林徽因文存》, 四川出版集團·四川文藝出版社, 2005, 69쪽)

19) 江勇振, 《星星·月亮·太陽 —胡適的情感世界》(增訂版), 新星出版社, 2012, 146쪽.

여 달라는 거였다. 루샤오만은 연인의 바람대로 일기를 써서 당시 자신의 심경과 쉬즈모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드러냈다.<sup>20)</sup> 따라서 이 일기의 원고가 '바바오샹'에 있었다면 그것은 분명 1925년이 아닌 그 이후에 쉬즈모가 령슈화에게 맡긴 것임을 말해준다.

둘째, 처음 쉬즈모가 그의 자료를 맡길 당시에는 '바바오샹'과 같은 문서를 담은 상자조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고 밝힌 점이다. 유럽에서 돌아온 그가 1925년 8월 14일 루샤오만의 일기를 보고 나서 예쁘고 튼튼한 상자를 하나 구입해서 두 사람이 주고받은 편지들을 보관하여 두 사람의 사랑에 대한 기념으로 삼겠다고 언급한 글이 있기 때문이다.<sup>21)</sup>

셋째, 쉬즈모는 루샤오만을 만난 이후 1925년과 1928년 두 차례에 걸쳐 유럽을 다녀왔다. 1925년에는 타고르와의 일정이 맞지 않아 유럽에서 줄곧 기다리다가 병이 났다는 루샤오만의 편지를 받고 조급해진 마음에 8월 경으로 예정된 타고르와의 만남을 취소하고 7월말에 서둘러 귀국했다.<sup>22)</sup>

20) 루샤오만의 일기는 《사랑하는 메이에게 보내는 짧은 편지 愛眉小札》에 수록되어 있는데, 《사랑하는 메이에게 보내는 짧은 편지》에는 두 개의 판본이 있다. 하나는 1936년 1월에 상하이양우도서공사(上海良友圖書公司)에서 출판한 친필 원고 영인본으로 쉬즈모의 1925년 8월 9일부터 31일까지의 베이징에서의 일기, 9월 5일부터 17일까지 상하이에서의 일기가 수록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1936년 3월에 같은 기관에서 출판한 것으로 여기에는 앞서 언급한 쉬즈모의 일기 외에 1925년 3월 3일부터 5월 27일까지의 루샤오만에게 보내는 쉬즈모의 편지 11통과 1925년 3월 11일부터 7월 11일까지의 〈샤오만 일기〉로 구성되어 있다.(검색어 '愛眉小札', 百度百科, <http://baike.baidu.com/view/1779475.htm?fr=aladdin>, 2014.06.15접속) 루샤오만의 일기는 바로 두 번째 판본에 수록되어 있었는데, 그녀의 일기는 다시 '출판본'과 '친필원고판'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루샤오만의 '출판본' 일기가 출판을 위해 원래의 일기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되거나 삭제된 부분이 있었다면, 2005년 위쿤린(虞坤林)이 발견한 '친필원고판'에는 1925년 3월 11일부터 이듬해 3월 7일까지 루샤오만의 생생한 심경이 그대로 담겨 있어서, 두 판본을 대조하여 읽어보는 것도 흥미로운 것이다. '출판본'과 '친필원고판'은 《陆小曼文存》(柴草編, 山西出版集團·三晋出版社, 2009年)에 모두 수록되어 있으므로 참고하기 바란다.

21) 柴草, 《眉軒香影: 陸小曼》, 人民文學出版社, 2012, 187쪽.

22) 런던을 떠나기 전 그는 당시 타고르의 영국인 비서 레너드 엘머스트에게 타고르에게 전하는 사과의 편지를 보내면서 다음과 같은 자신의 심경을 고백했다.

또, 1928년에 쉬즈모가 링슈화에게 맡겼다는 기록도 있는데, 이 내용은 1982년 10월 15일 링슈화가 쉬즈모의 친척 천충저우(陳從周)에게 보낸 편지에 언급되어 있다. 그 편지에서 링슈화는 여든이 넘는 고령인 까닭에 1928년을 1929년으로 잘못 기억하고 있긴 하지만, 쉬즈모가 죽기 2년 전 타고르를 만나러 유럽에 갈 때 조그만 상자를 보관해달라고 건네면서 반 농담식으로 만일 자신이 돌아올 수 없게 된다면 자신을 위해 전기를 써줘야 한다고 말했다고 적었다.<sup>23)</sup>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두 차례의 유럽행은 모두 쉬즈모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1925년 쉬즈모가 유럽에 체류할 당시 루샤오만과 왕경(王賡)의 이혼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sup>24)</sup> 쉬즈모는 장차 자신의 앞날이 어떻게 전개될지 전혀 가늠할 수 없었다. 그러나 주변의 곱지 않은 시선으로 힘들기는 했지만, 루샤오만에 대한 사랑은 그 어느 때보다 컸기 때문에 그가 자신의 짐을 맡기면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을 링슈화에게 했을 리는 없다. 오히려 이 말은 루샤오만과의 결혼 생활이 극도의 피로감에 달했던 1928년 유럽으로 떠나기 전에 피로운 심정 끝에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링슈화에게 보관된 쉬즈모의 자료들이 한 번에 맡겨진 것이 아닌 것처럼, ‘바바오상’ 역시 쉬즈모에게 돌아갈 기회가 몇 번 있었다. 일찍

“저는 이제껏 지금까지 이렇게 힘든 역경에 처해본 적도, 걱정에 빠져본 적도 없습니다. 다음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비극이거나 억살극일 수도 있을 테고, 어쩌면 모든 것의 종결일 수도, 어쩌면 새로운 생명의 시작일 수도 있을 겁니다.”: Tsemou Hsu to Leonard Elmhurst, July 13, 1925, 《徐志摩全集補編》第四冊, 上海書店, 1994, 170쪽.

23) “說到志摩, 我至今仍覺得我知道他的個性及身世比許多朋友更多一點, 因為在他死的前兩年, 在他去歐找太戈爾那年, 他誠懇的把一支(隻)小提琴提來交我保管, 他半開玩笑的說: 你得給我寫一傳, 若是不能回來的話(他說是意外), 這箱裏到有你所需的證件(日記文稿等等).”: 凌叔華, 〈談徐志摩遺文 — 致陳從周的信〉, 《新文學史料》, 1983年 第1期, 96쪽.

24) 루샤오만과 왕경은 1925년 9월 이혼수속을 밟고, 그해 연말 이혼합의서에 서명함으로써 두 사람의 혼인 관계는 끝났다. 韓石山, 《徐志摩傳》, 人民文學出版社, 2010, 248쪽.

이 링슈화는 '바바오샹'이 쉬즈모에게 돌아갈 기회가 두 번 있었는데, 쉬즈모가 가져가지 않았다고 말한 적이 있다. 한 번은 그녀가 남편 천시잉과 일본으로 떠나기 전인 1927년에서 1928년 사이였고, 또 한 번은 그들 부부가 우한대학(武漢大學)의 초빙을 받은 때인 1928년에서 1929년 사이였다고 한다.<sup>25)</sup>

그러나 쉬즈모가 '바바오샹'을 자신의 집으로 가져가지 않은 것이 그가 자신의 글들을 링슈화에게 맡긴 이후 한 번도 '바바오샹'을 열어본 적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1932년 1월 1일 린웨이인이 후스에게 보낸 편지를 살펴보면, 1928년 12월 중순 쉬즈모가 스승 량치차오의 병문안을 위해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 링슈화의 어머니 측으로부터 돌려받았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쉬즈모가 머물렀던 곳은 진위에린(金岳霖, 1895~1984)의 집이었는데, 링슈화가 예전에 살았던 그 집을 일부는 그녀의 친정어머니가, 일부는 진위에린과 그의 미국인 여자친구 릴리안 테일러(Lilian Taylor)가 세들어 살았기 때문이다.<sup>26)</sup> 쉬즈모는 그곳에 간 김에 자신의 '바바오샹'을

25) 凌叔華, 〈再談徐志摩遺文 — 致陳從周的信〉, 《新文學史料》, 1985年 第3期, 172쪽.

26) 1928년 12월 11일 쉬즈모가 루샤오만에게 보낸 편지는 虞坤林이 엮은 《志摩的信》(學林出版社, 2004, 94쪽)을 참고하였다. 여기에서 우리는 '릴리안 테일러'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쉬즈모 사후, '바바오샹'을 두고 링슈화와 린웨이인 간에 다툼이 발생했을 때, 링슈화가 1931년 12월 10일 후스에게 보낸 편지에는 1928년 10월 천시잉이 우한대학 교수로 초빙되어 우창(武昌)으로 가게 되었을 때, 즈린(之琳)에게 '바바오샹'을 건넸다고 밝힌 부분이 나온다. 훗날 비엔즈린(卞之琳, 1910~2000)은 이 사실을 《후스의 왕래 편지 선집 胡適來往書信選》(1979) 출판 이후 자오자비(趙家璧, 1908~1997)의 질문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卞之琳, 〈徐志摩的“八寶箱”: 一筆糊塗賬〉, 《散文鈔》, 安徽教育出版社, 2007, 113~114쪽 참고) 당시 벤즈린은 상하이 푸둥중학(浦東中學)에 재학 중이었고, 쉬즈모나 링슈화를 알게 된 것은 베이징대학 입학 이후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 일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자오자비에게 대답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천슈예은은 《“八寶箱”懸案》(《蓮燈詩夢 林徽因》(人民文學出版社, 2012 第2版, 171쪽)에서 링슈화의 편지에 등장하는 '즈린(之琳)'을 '릴리안 테일러'의 중문 이름 '리린(麗琳)'에 대한 오자(誤字)일 것이라고 보았다.

돌려받았지만, ‘바바오상’을 열어본 후 상자의 보관 상태를 보고 크게 화를 냈다고 한다.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린웨이인은 훗날 ‘바바오상’ 사건이 발생했을 때, 후스에게 보내는 편지에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그 상황을 묘사하였다.

이건 당일 즈모가 그녀에게 맡겼던, 그녀가 몰래 열어봤던 그 상자예요. (이 말은 즈모가 내게 직접 해준 겁니다. 그가 슈화의 어머니 측으로부터 상자를 돌려받았을 때, ‘내가 잠가두었는데, 어째서 열려 있지? 이건 나의 가장 중요한 문서 상자인데, 어째서 잠겨있지 않은 건지 이상한 일이군 --’, ‘너무 이상해, 많은 물건들이 안 보여, missing.’이라고도 크게 소리쳤어요. 옆에는 쓰청과 릴리안 테일러 그리고 나, 이렇게 세 명이 있었어요.”<sup>27)</sup>

위의 내용을 통해 1928년 12월 중순경에 ‘바바오상’이 슈즈모에게 돌아왔지만 원래 잠겨있었던 상자가 열려져 있고 일부 자료가 사라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마땅히 둘 곳이 없었기 때문에 이 상자는 다시 링슈화의 친정집에 보관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누가 잠겨있던 슈즈모의 상자를 열어 자료를 가져갔단 말인가? 이로 인해 슈즈모 사망 이후 그의 기념집을 출간하기 위해 사망으로 자료를 수소문하던 후스와 린웨이인은 분실된 자료의 행방을 두고 링슈화와 마찰을 빚었던 것이다.

## 2. 린웨이인과 링슈화의 갈등

슈즈모는 한때 린웨이인을 향해 뜨거운 사랑의 감정을 토로했고, 각자가정을 꾸린 이후로는 친혈육처럼 살뜰하게 그녀를 돌봐주었다.<sup>28)</sup> 그랬던

27) “此箱偏偏又是當日志摩曾寄存她的一個箱子，曾被她私開過的(此句話志摩曾親語我。他自叔華老太太處取回箱時，亦大喊‘我鎖的，如何開了，這是最要緊的文件箱，如何無鎖，怪事--’又‘太奇怪，許多東西不見了，missing’，旁有思成、Lilian Tailor及我三人。” 이 내용은 린웨이인이 1932년 1월 1일 오후 후스에게 보낸 편지에 나오는 구절로 그 출처는 다음과 같다: 林徽因, 《林徽因全集》, 新世界出版社, 2012, 174쪽.



그가 자신의 강연회에 참석하러 오다가 번고를 당했기 때문에 쉬즈모의 죽음에 가장 큰 책임을 느낀 이는 아마도 린웨이인이었을 것이다.<sup>29)</sup> 쉬즈모는 1931년 11월 11일 베이징을 떠나기 하루 전인 11월 10일 밤 린웨이인에게 한 장의 메모를 남겼는데, 그 메모에는 쉬즈모의 죽음을 암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내일 아침 6시 비행(飛行), 이번에 가면 생사 예측 불가……”<sup>30)</sup> 이에 불안감을 느낀 린웨이인은 쉬즈모가 머무는 후스 집으로 곧 전화를 걸어 쉬즈모에게 기차를 타고 가라고 권했다. 그러나 쉬즈모는 개의치 않고 이렇게 말했다. “안심해, 비행기는 매우 안전하니까. 게다가 나는 생명을 보전했다가 더 위대한 일을 지켜보아야 하는데, 어떻게 죽을 수 있겠어!”<sup>31)</sup> 쉬즈모는 린웨이인의 강연을 듣기 위해 19일 베이징으로 돌아 오겠다고 약속하며 전화를 끊었는데, 이 날의 전화통화가 그들이 나눈 마지막 대화가 되어버렸다.

쉬즈모의 장례를 치른 지 얼마 되지 않은 11월 26일 밤, 린웨이인은 칭화대학(清華大學) 외국어문학과 교수 예궁차오(葉公超, 1904~1981)로부터 링슈화의 집에서 ‘캠브리지 일기’를 본 적이 있다는 말을 듣게 된다.<sup>32)</sup> 직

28) 1928년 3월 캐나다에서 결혼식을 올린 린웨이인은 그 해 여름 남편과 함께 선양(沈陽)에 있는 동베이대학(東北大學) 건축학과에 부임하게 되지만, 동북 특유의 추운 날씨와 출산으로 인해 건강이 극도로 나빠지게 되었다. 당시 베이징에 있던 쉬즈모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단숨에 선양으로 달려가 린웨이인을 병문안했다. (이경하, <린웨이인(林徽因)의 삶과 문학 속의 ‘동반자’>, 《中國現代文學》第56호,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 2011, 52~53쪽 참고)

29) 쉬즈모는 상하이 집에 일이 있어 휴가를 내고 11월 11일 비행기를 타고 베이징을 떠났다가 19일 비행기를 타고 다시 베이징으로 돌아오기로 되어 있었다. 邕清塵, 《前生今世, 何處適之: 胡適傳》, 九州出版社, 2012, 150쪽 참고.

30) “定明早六時飛, 此去存亡不藹……” 劉雲, 《花開綿密的人間四月天》, 文彙出版社, 2011, 85쪽 인용.

31) “你們放心, 飛機很穩當的, 我還要留著生命看更偉大的事跡呢, 哪能便死!” 劉雲, 같은 글, 85쪽 인용. 여기에서 “더 위대한 일”은 린웨이인의 강연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32) 嶽南, <神秘的梁“八寶箱”之謎>,《如果我的心是一朵蓮花: 林徽因時代的追憶》, 中華書局, 2012, 142쪽.

접 나서기가 어려웠던 그녀는 후스에게 링슈화로부터 쉬즈모의 ‘바바오상’을 받아달라고 부탁했다.<sup>33)</sup> 당시 후스는 쉬즈모의 유작 목록을 작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린웨이인의 부탁을 받고 직접 링슈화에게 일기를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와 같은 후스의 요구에 링슈화 역시 더 이상 ‘바바오상’을 넘겨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링슈화는 ‘바바오상’의 보관자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응당 쉬즈모의 아내인 루샤오만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11월 27일 링슈화는 루샤오만에게 전해지기를 기대하며 후스에게 ‘바바오상’ 자료들을 건넸는데,<sup>34)</sup> 그녀의 기대를 저버리고 후스는 ‘바바오상’의 자료들을 바로 이튿날 아침 린웨이인 집으로 보내 버렸다.

자료를 받아본 린웨이인은 그 안에 ‘캠브리지 일기’가 들어 있지 않음을 발견하고 매우 분노하였다. 그러던 중 12월 7일 링슈화가 린웨이인 집으로 찾아와 쉬즈모의 서신집을 엮기 위해서라며 쉬즈모의 편지들을 달라고 하자, 린웨이인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를 들어 그녀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첫째, 그 편지들은 모두 텐진(天津) 집에 있으며 대부분 영어로 작성되어 당장 갖다 줄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갖다 주더라도 두 사람간의 사적인 내용이 담긴 그 편지들을 출판하여 대중에게 공개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내친김에 린웨이인은 캠브리지 일기의 행방에 대해 물었고, 링슈화는 갑작스런 그녀의 질문에 당황하여 곧바로 일기의 실체를 인정해버렸다. 그러나 바로 찾으러 가겠다는 린웨이인을 만류하고 이틀 후로 약속을 미뤘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했다. 두 사람이 약속했던 12월 9일 11시 반, 링슈화는 다음과 같은 편지를 남기고 외출해 버렸기 때문이다.<sup>35)</sup>

33) 劉炎生,《中國第一才女林徽因》, 湖北人民出版社, 2006, 66쪽.

34) 薑雯漪,《林徽因傳:有你是最好的時光》, 中國華僑出版社, 2012, 82쪽.

35) 陳學勇,〈八寶箱懸案〉,《蓮燈詩夢 林徽因》, 人民文學出版社, 2012 第2版, 172쪽 참고. 천슈에응은 일찍이 〈‘바바오상’ 미스터리와 ‘마담의 살롱’ “八寶箱”懸案與“太太客廳”〉을 《신문학사료 新文學史料》(2007年 第4期)에 발표한 바 있는데, 이듬해(2008年)에 출간된 그의 린웨이인 연구서 《연등시몽 린웨이인

어제 돌아와 즈모 일기를 찾아봤지만 못 찾았어요. 나중에 당시의 내 일기를 뒤적여 보고 나서야 즈모가 작은 노트 두 권, 큰 노트 하나, 이렇게 세 권의 일기를 전해 준 사실을 알았어요. 당신에게 있는 그 상자 안의 작은 노트는 다 읽어본 후 다시 넣어둔 거예요. (가득 적혀진) 큰 노트는 다 읽지 못했는데, 아마도 서화 상자에 있을 거예요. (친구의 물건이 많아 각별히 주의해서 보관했는데), 삼사 년 동안 사방으로 분주히 옮겨 다니고, 집에 산처럼 책이 쌓여 있어 다시 정리할 기회를 얻지 못 했거든요. 일간 한가로울 때 다시 꼼꼼히 살펴보면 분명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최근 며칠 간은 번잡스런 일이 있어, 아마도 이번 주말은 되어야 시간을 내서 찾아볼 수 있을 듯해요.<sup>36)</sup>

이 편지를 읽은 린웨이인이 매우 화가 났음은 자명하다. 그녀는 링슈화가 그날 집을 비운 것이 의도적으로 계산된 행동이었다고 보았다. 아울러 1928년 겨울 쉬즈모가 말했던 ‘바바오상’ 관련 의혹들을 모두 링슈화의 소행이라고 여겼다. 린웨이인은 그 증거로 위의 편지 내용 중에 언급된 “다 읽어본 후 다시 넣어둔 거예요”와 “다 읽지 못했는데”라는 구절을 꼽았다.<sup>37)</sup> 즉, 링슈화는 쉬즈모의 허락 없이 1928년 겨울 이전, ‘바바오상’을 열어 그 안에 있는 자료들을 읽었으며, 읽은 후에 그 자료들을 원상 복귀시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후스의 지지를 받지 못한 링슈화는 12월 14일 월요일 아침 128쪽에 달하는 반 권짜리 ‘캠브리지 일기’를 린웨이인의 집으로 보낼 수밖에

---

蓮燈詩夢 林徽因》에는 위의 논문이 몇몇 자구만 수정된 채 〈마담의 살롱 太太客廳〉(150~157쪽)과 〈‘바바오상’ 미스터리 “八寶箱”懸案〉(169~177쪽)로 나뉘어 수록되어 있다.

36) “昨歸遍找志摩日記不得，後檢自己當年日記乃知志摩交我乃三本，兩小一大，小者即在君處箱內，閱完放入的。大的一本(滿寫的)未閱完，想夾在字畫箱內(因友人多加意保全)因三四年中四方奔走，家中書物皆疊成山，甚少機緣重為整理，日間得閑當細檢一下，必可找出來閱，此兩日內人事煩擾，大約須此星期底才有空翻尋也。”：劉炎生，《中國第一才女林徽因》，湖北人民出版社，2006，67쪽 인용.

37) 이와 같은 견해가 1932년 1월 1일 오후 후스에게 보낸 린웨이인의 편지에 잘 나타나 있다.

없었다. 그러나 이를 받아본 린웨이인은 더욱 화가 났다. 링슈화가 보낸 일기는 1920년 11월 17일부터 시작되었는데, 공교롭게도 쉬즈모가 린웨이인을 알기 하루 이틀 전부터 뒷부분이 잘려져 4페이지가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린웨이인은 링슈화가 어떤 의도를 갖고 일부러 잘라버렸다고 의심했고, 이미 다른 지인에게서 링슈화가 린웨이인에게 이 일기를 보여주고 싶지 않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더 불쾌하게 여겼다.<sup>38)</sup>

린웨이인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전해들은 후스는 링슈화가 잘못 처신하고 있다고 여겨, 12월 28일자 편지에 그녀의 행동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어떠한지 다음과 같이 분명히 밝혔다.

웨이인에게 보낸 즘모의 일기가 반 권짜리라는 걸 어제 알게 되었는데, 내 생각에 자네는 분명 그 반 권을 남겨 두어 전기나 소설의 자료로 삼으려는 거 같소.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방법은 그다지 좋지 않소. 그 안에 정말 많은 폐단이 있기 때문이요. 첫째 자료가 분산되면 연구하기 불편하요. 둘째, 한 사람이 소장하면 사유화가 될 수 있고, 그러면 다른 사람 역시 각자 소유하려고 하는 위험이 따르요. 셋째, 친구 간에 이로 인해 이견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불행으로 죽은 친구가 결코 바라는 바가 아닐 것이요. 넷째, 자네가 이 두 권의 일기를 소장하고 있는 걸 다른 친구들이 모두 알고 있소. 내가 알고 있고, 공차오(公超), 멩허(孟和) 부부가 모두 알고 있으며,<sup>39)</sup> 웨이인에게는 자네가 직접 말했소. 그래서 지난 주에 만든 유고집 목록에 자네가 보관중인 일기 두 권도 적어 두었소. 어제 누군가 내게 물길래, “슈화가 큰 꾸러미를 보내 왔는데, 아마도 그 안에는 샤오만과 즘모의 일기가 들어 있는 거 같소, 아직 열어 보지는 못 했지만.”이라고 말해두었소. 그래서 오늘 이 편지를 자네에게 써서 그 두 권의 일기를 내게 넘겨 달라고 부탁하는 바요. 난 이 영문 일기들을 타자수에게 부탁해 세 개의 사본으로 만들 작정이요, 온전한 한 부를 자네에게 줄 테

38) 陳學勇, 《蓮燈詩夢 林徽因》, 人民文學出版社, 2012, 173~174쪽 참고.

39) ‘공차오(公超)’는 ‘예공차오(叶公超, 1904~1981)’를, ‘멍허(孟和)’는 ‘타오멍허(陶孟和, 1887~1960)’를 가리킨다.

니, 그걸 갖고 전기(傳記) 자료로 삼으시오.

이렇게 하면 남겨진 모든 자료에 사본이 있으므로 유실될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비밀리에 간직해야 함을 걱정할 필요도 없으니 전기를 쓰는 사람도 쉬워질 것이오.

내게 답장 부탁하오. 만일 인편에 일기를 보내준다면 더욱 좋겠소.<sup>40)</sup>

위의 편지에는 후스의 의도가 완곡하게 잘 나타나 있다. 그는 쉬즈모의 일기를 갖고 있는 링슈화에게 그 일기들을 개인적으로 소장해서는 안 되며 가능한 빨리 넘겨 달라고 요구하였다. 또한 이 일에 대해 자신은 물론 여러 지인들 모두가 주목하고 있으므로 그녀 스스로 현명하게 처리하기를 바라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큰 원망을 사게 될 것임을 암시하였다. 아울러 누군가 이와 관련하여 물어본 일과 그 문제에 대해 자신의 답변을 슬쩍 흘려 말함으로써 이후 링슈화가 어떻게 이 일을 매듭지어야 하는지도 간접적으로 알려주었다.

그런데, 위에 인용된 후스의 편지를 보면 한 가지 의문점을 떨칠 수 없다. 그는 12월 10일 링슈화가 자신에게 보낸 편지에 대한 답장으로 위의 편지를 적었는데, 링슈화의 편지에서는 분명히 루샤오만의 일기가 이미 런웨이인의 손에 들어간 것에 대한 링(凌)의 우려와 걱정이 잘 드러나 있는데도, 그는 여전히 동문서답 식으로 ‘두 권의 일기’를 강조하며 링(凌)으로

40) “昨始知你送在徽音處的志摩日記只有半冊，我想你一定是把那—冊半留下作傳記或小說材料了。但我細想，這個辦法不很好。其中流弊正多。第一，材料分散，不便研究。第二，一人所藏成爲私有秘寶，則餘人所藏也有各成爲私有秘寶的危險。第三，朋友之中會因此發生意見，實爲最大不幸，決非死友所樂意。第四，你藏有此兩冊日記，一般朋友都知道。我是知道的，公超與孟和夫婦皆知道，徽音是你親自告訴她的。所以我上星期編的遺著略目，就注明你處存兩冊日記。昨天有人問我，我就說：“叔華送來了一大包，大概小曼和志摩的日記都在那裏，我還沒有打開看。”所以我今天寫這信給你，請你把那兩冊日記交給我。我把這幾冊英文日記全付打字人打成三個副本，將來我可以把一份全的留給你做傳記材料。如此則一切遺留材料都有副本，不怕散失，不怕藏秘，做傳記的人就容易了。請你給我一個回信，倘能把日記交來人帶回，那就更好了。我知道你能諒解我的直言的用意，所以不會怪我。祝你好。”胡適，《胡適書信選》，外語教學與研究出版社，2011，198쪽.

하여금 하루 빨리 그 일기들을 보내달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sup>41)</sup> 또, 한 가지는 링슈화가 재차 ‘바바오샹’의 보관이 자신의 소관임을 여러 번 강조하여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과연 린웨이인의 입장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맡은 것이 공정했는지의 여부이다. 물론 개인적으로 후스는 링슈화 보다는 린웨이인과 훨씬 더 가까운 관계임에 분명하다. 또, 12월 10일자 링(凌)의 편지 말미에 밝힌 것처럼 루샤오만이 자신의 일기에 후스와 그 지인들에 대해 부정적인 언급을 했다면, 후스 역시 반드시 그 내용들을 확인하고 공론화되는 것을 피하고 싶다는 점에서 린웨이인과 같은 처지이기 때문이다.

결국 링슈화는 1932년 1월 22일 인편을 통해 반 권의 슈즈모 일기를 후스에게 보내면서 다음과 같이 자신의 입장을 해명한 편지를 동봉하였다.

외국어본을 온전히 돌려드려요. 포장지와 끈은 예전 그대로이니, 살펴 받아 보시기를. 이 일 이후 맑은 시냇물에 먹구름이 지난 것처럼 서로에게 그림자를 드리우지 않았으면 해요. 그렇지 않다면 친구간의 우애를 중시했던 고인을 어떻게 떳떳이 볼 수 있을까요!

선생께서 제 기억력이 나쁘다고 나무라셨는데,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번은 아니에요. 이번에는 분명 평상시 전혀 준비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말을 한 것과 같습니다. (즉, 우연히 한 두 마디 전후 맥락 없는 말을 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었을 뿐이었죠), 행동에 있어서도 평상시와 같았구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갖고 관찰하며 비판할 줄은 몰랐습니다. 준비하고 준비하지 않음의 차이는 매우 크지요. 됐습니

41) 이에 대해 비엔즈린 역시 후스의 편지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卞之琳, 〈徐志摩의 “八寶箱”: 一筆糊塗賬〉, 《散文鈔》, 安徽教育出版社, 2007, 115~116쪽 참고. 특히 비엔즈린의 글에서는 ‘바바오샹’ 미스터리와 관련하여 선충원(沈從文, 1902~1988)이 그에게 알려준 새로운 사실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그것은 ‘바바오샹’ 안에 든 내용이 린웨이인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우한대학의 여교수, 바로 위엔창잉(袁昌英)과 관련 있다는 것이다. (113쪽 참고) 이에 대해 비엔즈린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선충원이 망자의 명예를 고려하여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고 보면서 사건의 진실을 ‘소설화’시켰다고 냉소하였다.

다. 다만 올해 제 운세가 사나운 셈 치죠. 베이징 바람이 이렇게 매서울 줄은, 흠먼지가 이렇게 시야를 어둡게 할 줄은 평생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선생께서도 병에 걸리시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이 또한 나쁘지 않네요, 베이징을 늘 그리워하지 않아도 될 테니까요. 가족들에게 안부 전해주세요.<sup>42)</sup>

링슈화는 매우 조심스런 어투로 후스의 화난 마음을 가라앉히려 노력했고, 자신에게 어떤 별다른 의도가 없음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그녀는 편지 말미에 ‘바바오상’ 사건을 베이징의 사나운 날씨에 빗대며, 이번 일로 인해 자신이 받은 상처와 충격이 컸음을 내비쳤다. 이와 같은 링슈화의 태도에 더욱 불쾌해진 후스는 그 날의 일기에 다음과 같이 자신의 심경을 적었다.

즈모의 반 권 일기 때문에 베이징이 시끄러워 내가 있는 남방에서도 편히 지낼 수 없었다. 오늘 일기가 내 수중에 도착해 서둘러 읽어봤는데, 과연 그 안에 공공이가 있음을 알았다.

일기의 뒷부분을 살펴봤더니 잘려나간 페이지가 네 쪽 있었다. 나는 정말이지 화가 났다. 가까스로 화를 참으며, 잘린 부분들을 다시 돌려 달라고 편지에 적었는데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다. 뒷부분은 오늘 아침 일기를 돌려줄 때 (링슈화가 보낸) 편지 원본인데, 이 아가씨는 지금까지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sup>43)</sup>

42) “外本璧還，包紙及繩仍舊樣，望查收。此事以後希望能如一朵烏雲飛過清溪，彼此不留影子才好，否則怎樣對得住那個愛和諧的長眠人！你說我記憶不好，我也承認，不過不是這一次。這一次明明是一個像平常毫不用準備的人，說出話(即偶然說一二句前後不相呼應的話，也為見好於人而已)，行出事，也如平常一樣，卻不知旁人是有心立意的觀察指摘，這備與未備分別大得很呢。算了，只當我今年流年不利吧了。我永遠未想到北京風是這樣刺臉，土是這樣迷眼，你不留神，就許害一場病。這樣也好，省得總依戀北京，即問你們大家好。”：李伶伶·王一心，〈日記的胡適〉，陝西人民出版社，2007，225쪽.

43) “爲了志摩的半冊日記，北京鬧得滿城風雨，鬧得我在南方也不能安寧。今天日記到了我的手中，我匆匆讀了，才知道此中果有文章。我查此半冊的後幅仍有截去的四頁，我真有點生氣了，勉強忍下去，寫信去討這些脫頁，不知有效否。這位小姐到今天還不認錯！”：李伶伶·王一心，225쪽.

꼼꼼한 성격의 후스는 그 날의 일기 뒷부분에 링슈화가 보낸 편지 원본을 붙였는데, 그는 종종 이와 같은 방식으로 편지를 보관하곤 하였다. 위의 일기 내용을 살펴보면 자신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링슈화가 일기를 온전히 돌려주지 않고 일부 내용을 빼돌린 것에 대해 후스가 매우 화가 났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후 그의 일기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더 이상 언급되지 않았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바바오상’ 사건은 그 책임 소재와 이유를 놓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당시 린훼이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쉬즈모와 그녀가 런던에서 유학할 때 분명 심각한 관계였을 거라고 호사가들은 생각했고, 이와 같은 연애행각이 당시 쉬즈모의 ‘캠브리지 일기’에 적혀 있을 거라고 믿어, 어떤 이는 린훼이인이 찢어버린 거라고 말했다. 그러나 린훼이인은 링슈화가 자신에게 쉬즈모의 일기를 돌려줄 때 여러 핑계를 둘러대며 반환을 미루었을 뿐만 아니라, ‘캠브리지 일기’의 경우 반 권만 주었다가 나중에 후스까지 개입되고 나서야 나머지 반 권을 확인하게 해주는 의심스러운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링슈화의 소행이라고 여겼다.<sup>44)</sup>

만일 린훼이인의 추측대로 링슈화가 쉬즈모의 ‘캠브리지 일기’ 중 일부를 찢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훗날 링슈화는 남편 천시잉과 자유연애를 통해 결혼했으나, 쉬즈모를 사랑했으며 남편과의 결혼은 “의무를 다하기 위함이고 결혼을 위한 결혼”이었다고 그녀의 영국 연인이었던 줄리안(Julian Bell, 1908~1937)에게 고백한 적이 있다.<sup>45)</sup> 그녀는 쉬즈모에 대한

44) 1932년 1월 1일 저녁에 린훼이인이 후스에게 쓴 편지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오는데, 당시 그녀의 심경을 잘 대변해준다고 볼 수 있다: “지금 일기를 누가 잘라 갔든 간에 그 안에 일부가 빠졌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녀가 솔직히 밝히기 전에는, 몇 마디 거짓말에 대해 확실히 설명하기 전에는, 영원히 그녀에게 혐의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즈모 스스로 뜯어냈을 리 없어요, 샤오만에게 물어봤거든요. (現在無論日記是誰裁去的, 當中一段缺了是事實, 她沒有坦白地說明以前, 對那幾句瞎話沒有相當解釋以前, 她永有嫌疑的(志摩自己不會撕的, 小曼尚在可問).”: 林徽因, 《林徽因全集》(散文/小說/書信), 新世界出版社, 2012, 176쪽.



연모의 정에서 그 부분을 없앤 것일까? 아니면 자신이 얻은 특종의 자료로 쉬즈모와 린웨이인의 이야기를 훗날 써보려고 했던 것일까?

사실, 쉬즈모는 생전에 자신의 파란만장한 로맨스를 훗날 문학작품으로 남기고 싶어 했는데, 자료를 보관할 지인으로 입이 무거운 링슈화를, 소설로 집필할 지인으로 글재주가 뛰어난 선충원(沈從文, 1902~1988)을 꼽았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선충원이 1931년 12월 12일 후스에게 보낸 편지에도 잘 드러나 있다.<sup>46)</sup> 그 편지를 통해 링슈화의 주장이 틀린 말이 아님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또, 링슈화에 따르면 쉬즈모가 ‘바바오상’을 맡길 때 만일 자신이 돌아올 수 없게 된다면 그녀더러 알아서 처리해달라는 말까지 남겼다고 하니,<sup>47)</sup> 링슈화 입장에서는 쉬즈모 사후 그의 자

45) “叔華告訴他(朱利安), 她曾經愛過徐志摩, 只是當時不肯承認, 她與陳西滢結婚是爲了盡義務, 是爲了結婚而結婚.”: 魏淑凌 著·張林傑 譯, 《家園夢影: 凌叔華與凌叔浩》, 百花文藝出版社, 2008年, 215쪽 인용. 1930년대 중반 우한대학(武漢大學)에서 링슈화는 영국 청년 줄리안과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는데, 생전에 쉬즈모가 그녀를 일러 감정을 절제할 수 있는 이성적인 인물이라고 평한 일을 떠올려 본다면 매우 뜻밖의 일이 아닐 수 없다. 凌叔華 著, 陳學勇 編撰, 《中國兒女—凌叔華佚作·年譜》, 上海書店出版社, 2008, 234~242쪽.

46) “8월에 제가 베이핑을 떠나기 전 선생님 집 2층에서 그와 함께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누었는데, 당시 그는 자신의 자료를 보관할 최고 적임자는 말수가 적은 슈화라고 말했습니다. 그에겐 분명 그만의 고심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또 저와 그는, 그가 늙고 우리 모두 늙게 되면, 제 노년의 열정을 자신의 젊은 시절을 작품화하는데 사용해 달라고, (그 때) 바바오상 전부를 참고해도 된다는 얘기까지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칭다오에 도착하자, 그가 바바오상을 이미 가져왔으니 베이핑에 오게 되면 들르라는 편지를 제게 보냈던 겁니다.(八月間我離開北平以前, 在你樓上我同他談到他的故事很久, 他當時說到最適宜於他案件的人, 是不甚說話的叔華. 他一定有他的苦心. 因爲當時還同我說到, 等他老後, 等我們都老一點後, 預備用我老後的精力, 寫他年青的故事, 可以參考他百寶箱的一切, 所以我到青島後, 他來信還說已經把百寶箱帶來了, 等將來到北平看.”: 蔡登山, 《民國的身影》, 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09, 49~50쪽.

47) 링슈화의 회고에 의하면 당시 쉬즈모가 다음과 같이 그녀에게 말했다고 한다. “당신이 나를 위해 전기를 써줘야만 하오. 만일 내가 돌아올 수 없게 된다면 말이오(그가 말한 것은 ‘변고’였다), 이 상자 안에는 필요한 증거(일기나 원고 등)가 다 있소.(你得給我寫一傳, 若是不能回來的話(他說是意外), 這箱裏到有

료들을 모두 넘겨달라는 후스와 린웨이인의 태도가 주객(主客)이 전도(顛倒)된 것으로 보였을 것이다.

한편, 린웨이인 역시 슈즈모로부터 ‘캠브리지 일기’가 있다는 얘기를 전해들은 적이 있으며, 그녀가 원한다면 간직해도 된다는 말을 그에게 직접 들었기 때문에 ‘일기’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여겼다.<sup>48)</sup> 그러나 두 사람간의 약속은 어디까지나 구두(口頭) 상으로만 이루어진 것으로 그 진실 여부는 전적으로 린웨이인 본인의 양심에 달린 문제였다. 결국 이 일은 후스가 직접 나서 정리한 후에야 일단락되었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었다. 링슈화는 슈즈모의 가장 신임 받는 친구로 평가받았던 인물이고, 린웨이인은 슈즈모의 마음속에 가장 큰 사랑을 남겨준 여인이었다. 그러나 이처럼 슈즈모가 가장 믿었던 친구와 가장 사랑했던 두 여인의 갈등 때문에 ‘캠브리지 일기’는 영영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1980년대 비엔즈린은 《슈즈모선집 徐志摩選集》의 서문을 준비하면서 이 일기의 행방에 대해 진위에린에게 물었는데, 뜻밖에도 ‘캠브리지 일기’는 문혁 중 사라졌으며, 이는 결코 홍위병에 의한 것은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다.<sup>49)</sup> 진위에린은 린웨이인의 오랜 지기였으며 그녀를 연모했던 적이 있고, 그녀의 남편 량쓰칭과도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내막을 알고는 있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살아생전에 린웨이인의 사생활과 관련되어서는 어떤 이야기도 공론화하지 않았기에 ‘캠브리지 일기’의 행방에 대해서도 더 이상의 언급을 하진 않았다.

你所需的證件(日記文稿等等): 凌叔華,〈談徐志摩遺文 — 致陳從周的信〉,《新文學史料》, 1983年 第1期, 96쪽.

48) 관련 내용은 린웨이인이 후스에게 보낸 1932년 1월 1일 오후 편지에 등장한다. 林徽因,《林徽因全集》(散文/小說/書信), 新世界出版社, 2012, 171쪽.

49) 卞之琳,〈徐志摩的“八寶箱”: 一筆糊塗賬〉,《散文鈔》, 安徽教育出版社, 2007, 115쪽.

#### IV. 나오는 말

쉬즈모의 죽음이 당시 문단에 미친 충격은 매우 컸는데, 그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이는 루샤오만과 링슈화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루샤오만의 경우 쉬즈모와의 원만하지 않은 결혼 생활로 인해 일정 부분 그녀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링슈화의 경우는 약간 다르다. 쉬즈모의 ‘바바오상’으로 인해 그녀는 린웨이인과 평생 꺾끄러운 사이가 되었고, 린웨이인을 지지한 후스와도 소원해졌다. 당시 베이징 문예계에서 가장 중요한 인사 중 한 명인 후스가 ‘바바오상’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올랐을 때 린웨이인을 지지해주었기 때문에 링슈화의 입장은 매우 난처해졌고, 자신만 아는 용졸한 인물로 비취졌다. 생전의 링슈화는 당시 자신이 이와 같은 부당한 평가와 오해를 받게 된 것에 대해 린웨이인과 후스에게 큰 서운함을 느꼈는데, 이런 심경은 1982년 10월과 1983년 5월 천충저우에게 보낸 편지에도 잘 드러나 있다.<sup>50)</sup>

사실 이 사건은 관련자 모두 나름의 입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린웨이인은 이미 쉬즈모가 죽기 약 반 년 전쯤 그로부터 직접 ‘캠브리지 일기’가 있다는 사실과 만일 그녀가 원한다면 간직해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sup>51)</sup> ‘캠브리지 일기’는 응당 자신이 간직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 같다. 그러나 링슈화 역시 쉬즈모가 맨 처음 ‘바바오상’을 맡길 때 그 자신에게 무슨 번고라도 생긴다면, 이를 자료로 삼아 글을 써달라는 말을 직접 들었기 때문에 린웨이인이나 후스가 그녀에게 자료를 모두 넘기라고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했다. 또 후스는 쉬즈모라는 한 천재 시인의 개인 자료가 어느 한 사람에게 소장되어서는 안 되고, 모두가 공유

50) 凌叔華,〈談徐志摩遺文 — 致陳從周的信〉,《新文學史料》,1983年 第1期,96쪽. / 凌叔華,〈再談徐志摩遺文 — 致陳從周的信〉,《新文學史料》,1985年 第3期,172~173쪽.

51) 1932년 1월 1일 오후 후스에게 보낸 린웨이인의 편지를 참고하기 바란다. 林徽因,《林徽因全集》(散文/小說/書信),新世界出版社,2012,171쪽.

하여 더욱 훌륭한 유고문집을 출판하는 것이 친구로서 자신이 해야 할 사명으로 여겼기 때문에 링슈화로부터 그에 관한 모든 자료를 얻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이 세 사람은 아무도 ‘바바오상’에 관한 소유권을 정당하게 주장할 수 없다. 오직 쉬즈모의 법적 후계자인 루샤오만이 그럴 권리가 있었지만, 링슈화만이 후스에게 ‘바바오상’의 물건들을 루샤오만에게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을 뿐 후스 역시 링슈화의 제안을 거절했다.<sup>52)</sup> 결국 후스와 린웨이인에게 굴복당한 링슈화는 자신이 소장하던 ‘캠브리지 일기’를 건네주지만, 후스가 링슈화에게 일기를 달라고 요구할 때 내세운 ‘슈즈모전집’ 출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기를 읽어본 린웨이인이 분명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이와 같은 자신의 생각을 장문의 편지로 후스에게 전달했고,<sup>53)</sup> 이를 후스가 수용했기 때문이다.

‘바바오상’ 사건으로 인해 쉬즈모의 지인 간에 벌어진 논쟁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링슈화의 태도에 충격을 받은 린웨이인은 후스에게 그녀에 대한 극도의 실망감을 토로했고, 쉬즈모가 생전에 링슈화를 두고 옹졸하다는 말도 한 적이 있다고 폭로했다.<sup>54)</sup> 일찍이 쉬즈모는 링슈화를 두

52) 이와 같은 내용이 1983년 링슈화가 천총저우에게 쓴 편지에 언급되어 있다. 凌叔華, 〈談徐志摩遺文 — 致陳從周的信〉, 《新文學史料》, 1983年 第1期, 96쪽.

53) 린웨이인이 ‘캠브리지 일기’의 출간을 반대한 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었다. 그녀는 쉬즈모의 영문 일기들이 그다지 잘 써진 글들이 아니라는 점을 내세우며, 이런 글들이 그의 전체 생애에 관한 전기 집필이나 연구에는 많은 도움을 주겠지만, 단독으로 출판하기에는 영문학적인 가치가 그다지 크지 않다고 보았다. 적어도 자신이 읽은 그 두 권의 일기 글들은 이후에 쓴 그의 다른 작품이나 편지에 비해 훨씬 뒤처지며, 관계자들이 모두 살아 있기 때문에 매우 불편하다는 이야기도 아울러 덧붙였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1932년 봄 린웨이인이 후스에게 보낸 편지를 참고 하기 바란다. 林徽因, 《林徽因全集》(散文/小說/書信), 新世界出版社, 2012, 179쪽.

54) 1932년 1월 1일 저녁 린웨이인이 후스에게 보낸 편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志摩常說“叔華這人小氣極了。”我總說“是麼? 小心點吧, 別得罪了她。”女人小氣雖常有事, 像她這種有相當學問知名的人也該學點大方才好。: 林徽因, 《林徽因全集》(散文/小說/書信), 新世界出版社, 2012, 176쪽.

고 그 누구보다 훨씬 자신을 잘 이해하고 배포가 큰 친구라고 말했었는데, 처음과는 달리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링슈화에 대한 쉬즈모의 평가 역시 조금은 바뀐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어찌 되었건 쉬즈모가 루샤오만을 알기 전 링슈화에 대한 감정에는 어느 정도의 진정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단초로 1926년 10월 30일 《베이양화보 北洋畫報》에 실린〈신시인이 마음먹은 대로 얻은 인연 新詩人之得意緣〉이라는 글을 꼽을 수 있다. 익명으로 발표된 그 글에서 저자는 쉬즈모가 린웨이인과 링슈화를 얻을 수 없게 되자, 루샤오만을 따라다닌 것이므로 진정으로 루샤오만을 사랑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당시에 분명 쉬즈모와 링슈화에 대한 소문이 어느 정도 퍼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sup>55)</sup>

살아서도 끊임없는 풍문을 만들었던 쉬즈모는 죽어서도 이처럼 많은 호사가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다. 연기처럼 사라진 ‘캠브리지’ 일기에는 과연 어떤 내용이 적혀 있었을까? 만일 유실된 그 자료들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동안 쉬즈모와 린웨이인의 관계에 대해 설왕설래되었던 여러 가지 소문과 억측에 정확한 사실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기회는 결코 오지 않았기에 린웨이인과 쉬즈모를 둘러싼 러브 스토리는 더욱 각색되어 후세에 전해지게 되었다.<sup>56)</sup>

### < References >

Bianzhilin, “Xu Zhimo de ‘Ba Bao Xiang’: yi bi hutu zhang(Xu Zhimo's jewel case: A muddled account”, *Sanwen chao* (Prose notes), Hepei: Anhui Education Publishing House, 2007.  
Chaicao, *Lu Xiaoman Wencun* (Collected works of Lu Xiaoman),

55) 柴草, 《眉軒香影陸小曼》, 人民文學出版社, 2012, 89쪽.

56) 薑雯漪, 《林徽因傳: 有你是最好的時光》, 中國華僑出版社, 2012, 85쪽.

- Taiyuan: Sanjin Press, 2009.
- \_\_\_\_\_, *Mei Xuan Xiang Ying* (Mei Xuan Scented Shadow: Lu Xiaoman), Beijing: The People's Literature Publishing House, 2012.
- Chen Xueyong, *Lin Huiyin xun zhen* (Seeking for the True Story of Lin Huiyin), Beijing: Chung hwa book co. ltd, 2004.
- \_\_\_\_\_, *Gaomen juzu de lanhua: Ling Shuhua de yisheng* (Noble and wealthy families orchid: The life of Ling Shuhua), Beijing: The People's Literature Publishing House, 2010.
- \_\_\_\_\_, *Lian Deng Shi Meng Lin Huiyin* (Lotus lamps dream Poems), Beijing: The People's Literature Publishing House, 2012.
- Han Shishan, *Xu Zhimo zhuan* (The biography of Xu Zhimo), Beijing: The People's Literature Publishing House, 2010.
- Jiang Yongzhen, Xingxing·Yueliang·Taiyang — Hushi de ganqing shijie (Stars, the moon, and the sun – Hu Shi's emotional world), Beijing: New star Publishing House, 2012.
- Lee Kyungha, *Selected Poems of Xu Zhimo*, Seoul: Zmanz, 2010.
- Lin Huiyin, *Lin Huiyin Quanji: Sanwen/xiaoshuo/shuxin* (The complete works of Lin Huiyin: prose/novel/letter), Beijing: New World Press, 2012.
- Li Lingling & Wang Yixin, *Riji de Hushi* (The diary of Hushi), Xi'an: Shanxi Pepole's Press, 2007.
- Lin Shan, *Lin Huiyin zhuan* (The biography of Lin Huiyin), Beijing: Jiuzhou Publishing company, 1988.
- Ling Shuhua, “*Tan Xu Zhimo yiwen — zhi Chen Congzhou de Xin* (On Xu Zhimo's writings – letter to Chen Congzhou)”. *Xin wenxue shiliao* (New literary history), 1(1983).
- Ling Shuhua, “*Zai tan Xu Zhimo yiwen — zhi Chen Congzhou de Xin* (On Xu Zhimo's writings – letter to Chen Congzhou)”. *Xin*

- wenxue shiliao(New literary history), 3(1985).
- Liuyun, *Hua kai mianmi de renjian siyue tian*(Flowers dense world April day), Shanghai: Wenhui Press, 2011.
- Song Shenggui, *Ling Shuhua de Guyun Mengying*(The ancient dream of Ling Shuhua), Beijing: Oriental Press, 2008.
- Yue Nan, *Ruguo wo de xin shi yi duo lianhua:Lin Huiyin shidai de zhuyi*(If my heart is a lotus: Reminiscence prose Lin Huiyin Era), Beijing: Zhonghua Book Company, 2012.
- Zhang Qingping, *Lin Huiyin zhuan*(The biography of Lin Huiyin), Tianjin: Baihua Literature and Art Publishing House, 2007.
- Zhu Yingxiao, *Ling Shuhua zhuan*(The biography of Ling Shuhua), Nanjing: Jiangsu Literature and Art Publishing House, 2012.

### <Abstract >

The more we study on Xu Zhimo, the more we are fascinated by his whole life story because new stories continuously have appeared. After Xu Zhimo died in the mid-thirties due to an accident, people blamed Lu Xiaoman for their unhappy marriage and put a fame fatale image on her. However, there was another woman who influenced on Xu Zhimo's life besides Lin Huiyin and Lu Xiaoman. Ling Shuhua was the woman. Ling Shuhua and Xu Zhimo shared a friendship that transcended their sexual difference. When Xu Zhimo had a difficult time because the romance with Lu Xiaoman, he decided to go Europe after Rabindarnath Tagore sent a letter him, which Tagore hoped to meet him. Before going Europe, he left many private materials including diary, letters and etc to Ling Shuhua, one of his friends. However after he

died suddenly, disputes between his close friends around Xu Zhimo's storage box, 'Ba Bao Xiang'. The example of disputes was the trouble between Ling Shuhua and Lin Huiyin. This trouble was resolved by Hushi, but, Ling Shuhua and Lin Huiyin had bad feelings to each other due to this problem. Indeed, what was the truth of mystery of 'Ba Bao Xiang'? It is very difficult to find the truth because the related persons are dead and because the records on 'Ba Bao Xiang' were differently interpreted according to their own positions. However, we intend to meticulously study the cause and process of accidents through diaries and letters which were written by Xu Zhimo, Ling Shuhua, Lin Huiyin and Hushi. Since this study can let us face these writers as ordinary persons not literary persons, we will also have an opportunity to understand the inner world of the writers.

Key Words : 쉬즈모(Xu Zhimo), 린훤이인(Lin Huiyin), 루샤오만(Lu Xiaoman), 링슈화(Ling Shuhua), 후스(Hushi), 바바오상(Ba Bao Xiang)